

7월6일(월)/누가복음7:29-35

제목: 설교에 편식하는 자

장터에 모인 아이들 중에는 상대편 친구들이 결혼식 놀이를 제안 하며 악기를 연주해도 흥겨워하지 않으며 거기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반대로 장례식 놀이를 제안하면서 애곡을 하여도 거기에 전혀 반응 하지 않으며 놀이 자체를 반대하는 아이들이 있었다.(32절) 예수님은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을 이런 아이로 비유하였다. 그들은 공의와 심판을 외치며 금욕 생활하는 세례요한을 귀신들렸다고(33절),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는 죄인의 친구’ (34절)라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장터의 아이들처럼 자기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것은 전부 부정해 버렸다. 그들은 죄인을 용납하는 예수님의 설교도,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요한의 강한 메시지도 입맛에 맞지 않았다. 그들은 바리새파 체제를 유지시켜주고 자기들을 띄어주는 설교만을 좋아하였다.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기호의 설교가 있다. 그러나 설교는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 성경 안에는 수천가지의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의 설교만 들으면 영양실조에 걸리기 쉽다. 설교자도 골고루 먹여주어야 할 의무도 있다.

7월7일(화)/누가복음7:36-50

제목: 죄용서는 완료 시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머무실 때 (36절) 그 동네 죄 많은 여인으로 알려진 한 여인이 나와서.(37절) 그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발랐다.(38절) 죄인이라는 말은 창녀의 통속적인 표현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창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탕감 받은 두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41-43절) 그녀의 행동을 해석해주셨다. “사함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은 사랑을 하고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은 사랑을 한다” (47절) 는 것이다. 그녀가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한 것은 그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탕감 받았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47절) 말로 다시 위로하셨다. 이 말은 완료 시제로써 이미 과거에 죄 사함이 완료되었다는 뜻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살아온 세월만큼 쌓아온, 즉 50년, 60년, 70년 묵은 죄의 멍치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먼지처럼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다. 그 앞에서 무시무시한 죄의 빌딩들은 와르르 무너진다. 그 앞에서는 상황종료 상황완료 된다. 참 감격스러운 말씀이다.

7월8일(수)/누가복음8:1-3

제목: 알려지지 않은 여인 요안나

예수님의 무리 중에 요안나가 있었다.(3절) 그녀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였다. 청지기의 아내는 재정부장관의 아내라는 말이다. 그런데 왜 그런 그녀가 예수님의 무리에 끼어있을까? 그 무리는 귀신과 병에서 치유 받은 하류층 여자들이 많았다.(2절) 이 장관 부인이 왜 이 무리 속에 있는가? 이 여인은 헤롯 왕궁의 삶에 염증을 느낀 여인이었다. 남편을 포함한 정치인들의 권모술수, 부정, 부패, 살인(세례요한 살해) 사치, 망탕, 음란한 그 사회 밑바닥을 훤히 아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그러한 왕궁의 삶에 염증을 느끼던 중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곳을 뛰쳐나왔다. 부를 누리며 개 같은 삶을 살기 보다는 가난해도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다. 어찌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버린 사람일 것이다. 귀신들려 가족까지 외면했던 막달라 마리아, 그물과 배를 버린 베드로, 세금장부를 버린 세리 마태 보다 요안나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버렸다. 성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요안나 앞에 두었지만 하나님은 요안나를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높은 가치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았을까?

7월9일(목)/누가복음8:4-15

제목: 찬양의 위력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11절)이며 발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데 여러 종류의 마음이 있다. 즉,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좋은 밭 등 네 가지 마음이 있다.(5,6절) 하나님의 말씀이 불량한 마음에 떨어지면 효용 가치가 없지만 좋은 마음 밭에 떨어지면 엄청난 결실을 이룬다.(15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 우리 마음에 세상의 염려, 걱정, 죄악, 상처, 원한, 우울, 스트레스 같은 독가스가 가득차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싹도 피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이란 자주 바뀐다. 순식간에 좋은 밭에서 가시떨기로 바뀌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우리는 항상 좋은 마음 밭을 가꾸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독가스를 치우고 좋은 마음 밭을 유지할 수 있을까?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찬양에 몰두하는 것이다. 말씀을 받기 전 뜨겁게,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해 찬양하는 것이 좋다. 열정적인 찬양은 마음에 카타르시스가 된다. 찬양에 심취하는 동안 독가스는 서서히 빠진다. 뜨거운 찬양 후에 받는 말씀은 그대로 마음에 꽃피게 된다.

7월10일(금)/누가복음8:16-18

제목: 하나님의 렌즈

등경은 등불을 올려놓거나 걸어 놓을 수 있는 틀을 가리키는데 보통은 집 안의 구석 구석을 밝힐 수 있는 곳에 둔다. 등불은 항상 등경위에 있어야 사물을 환히 드러낸다. (16절)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숨은 것과 감추인 것은 언젠가는 환히 드러난다는 교훈을 주셨다. (17절) 정말 그런 것 같다. 이 세상에 비밀이란 것은 없는 것 같다. 그러므로 비밀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불행하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것이 드러나면 수치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무엇을 숨기려 한다. 하나님에게 비밀이 있는 사람은 더 불행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그것이 드러나면 심판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복한 사람은 아무 것도 숨길 것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당신은 끊임없이 나를 감찰하시나이다. 그 하늘의 렌즈 아래서 나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하늘의 렌즈는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지금도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찍고 있고 그 필름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전송하고 있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